

『아담스미스』의

『公共의福祉』와 勞動階級

南 惠 祐

「政治家 又は 立法家の 學問의 一部分으로 생각되는 經濟學은、 두개의 서로 區別해야 할 目的을 追求한다、 첫째는 人民에게 潤澤한 收入 或은 生存을 供與하는것! 좀더 適切히 말한다면 人民으로 하여금 自身の 힘으로 充足한 收入 或은 生存을 獲得케 하는것이요、 둘째는 國家 또는 社會에 對하여 公共의 所用에 充分한 收入을 주는것이다。 經濟學은 人民과 君主와의 雙方을 富裕케 하는것을 企圖한다。」①

이것은 흔히 引用되는 「스미스」의 「國富論」 中の 一句節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스미스」의 經濟研究의 動機 또는 目的 나아가서는 「스미스」가 본 經濟學의 定義等을 充分히 짐작 할수가있다 即 「스미스」에있어서는 國民과 君主의 雙方을 富裕하게하는 方法을 研究하는 것이 經濟學의 主要目的이었든 것이다。 그런데 前記와 같이 「스미스」가 指定한 經濟學의 두가지 目的中에 君主를 富裕케 한다는 後者の 目的은 이미 「스미스」以前の 經濟思想에 있어서도 흔히 볼수있는 觀念이니

만큼 「스미스」經濟學 固有的 目的을 求한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前者의 目的、即 「國民個個의 富裕化」가 아닐수 없다。即 「國民으로 하여금 自身の 힘으로 豊富한 收入 또는 生存을 獲得케 한 다는것」이 「스미스」經濟學의 主要目的이요 그基本精神이었다고 생각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國民個個」가 富裕化 한다는 것은 文字 그대로 國民全體가 富裕化 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고 決코 어느 一階級 또는 集團 만의 富裕化가 아님은 勿論이다。事實上 「스미스」에 있어서는 國民個個의 福祉 乃至 利益은 반드시 社會 乃至 「公共의 福祉」(Public good)와 一致하여야 하며 또 그것은 一致하게 마련인 것이다。그리고 그것이 一致하는 것은 普通 사람들이 생각 하듯이 個個人이 公共의 福祉에 優先權을 認定하고 그를 爲하여 自己의 利益을 犧牲 할 때 에 잘 實現되는것이 아니라 도리히 個個人이 自己自身の 利益에 充實하여 積極적으로 그를 追求할 때에 더 잘 實現되는 것이다。 「스미스」의 말을 빌린다면 國民各自가 「自己自身の 利益을 追求함으로써 그가 直接으로 社會의 利益을 增進 시키려고 할 때보다 一肝 効果적으로 社會의 利益을 增進하는것」③ 이다。그리고 무엇보다 「公共의 福祉를 爲하여 장사를 하는체 하는 사람치고 많은 善을 行한 例는 없는것」이다。③

이리하여 「스미스」의 있어서는 個個人의 福祉는 곧 「公共의 福祉」이니 따라서 「스미스」의 經濟學 의 目的은 一面으로는 「公共의 福祉」의 增進에 있었다고도 볼수 있는것이다。이렇듯 「스미스」에 있어서는 國民個個人의 福祉는 어디까지나 「公共의 福祉」와의 調和下에서 追求되고 있는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英國經濟學의 傳統이라고 할수있는 「厚生」의觀點이 이미 「스미스」에서 發端하고 있음을 보는것이다。이러한 意味에서 우리는 먼저 「스미스」의 「公共의 福祉」를 中心으로 하여 그 厚生 經濟學的 要素를 若干 檢討해 보고저 한다。

먼저 「스미스」의 「公共의 福祉」가 어떠한 具體的 內容을 갖이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그런데勿論 「國富論」에는 「스미스」가 直接的으로 「公共의 福祉」의 定義를 나열거나 또는 概念을 規定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根本思想 乃至 國富論의 諸說論 가운데에서 그를 間接적으로 推論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當代의 道德觀이다. 이時代는 卽시한 것이 없이 「데이비드 흄」(David Hume) 「프란시스 하치슨」(Francis Hutcheson) 「벤디크트」(Bernard Mandeville) 등과 또 佛蘭西의 啓蒙思想家들이 歐洲世界에서 모든 封建的인 觀念形態와 싸우고 있던 時期다. 그리고 이들 諸思想家들의 道德觀의 共通的인 特徵은 中世의 形而上學的、神學的인 觀點을, 모두가 經驗的、物質的인 觀點으로 抗拒하였다는 點인 것도 再言을 要치 않는다. 一例로 「스미스」에게 가장 가까운 親友이었던 「흄」만 하더라도 善과 惡을 區別함에 있어서 中世의 神學的인 判斷을 一擲하고 單純直截하게 快樂을 주는 資質이 善이요 苦痛을 주는 資質은 惡이라고 했던 것이다. 또 「스미스」의 「글라스고우」大學時代의 恩師이었던 「하치슨」도 善의 規準은 一般的幸福 Great happiness) 或은 「最大多數의 最大幸福」(The greatest happiness for the greatest numbers)라고 하였으니 이 標語는 後代의 功利主義哲學者의 代表者인 「제메이 벤담」이 내세운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s 와 單語하나 差異 밖에는 없는 것이다. ①

「랑드빌」의 有名한 「私惡 卽 公益論」도 方便으로는 功利的 觀點을 떠난 善의 規準이 얼마나 迂遠한 일인가를 指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스미스」自身은 어떻게 하나 하면 그는 사람은 快樂을 얻고 苦痛을 避하는 手段으로 苦干的인 配慮와 先見을 배워야 하며 그러한 熟慮(Prudence)가 또한 하나의 德目이라고 했던 것이다. ②

이와 같이 이時代의 思想家들은 모두가 道德의 規準을 어디까지나 實際的 經驗的인 人間自然의

性情的 滿足 1 다시 말하면 各個人의 安樂(comfort)과 幸福(happiness)의 求하고 있는 것이다.

그當時의 進歩的인 道德觀이 이러할진대 「스미스」의 「公共의 福祉」라는 말도 大概 上記와 같은 公共의 安樂이나 幸福과 相通하는 概念이 었다는 것은 쉽게 推斷할 수 있는 일이다.

勿論 아주 現實的으로 事物을 생각했든 그들은 한社會內의 모든 사람이 다같이 幸福할 수 있다 고는 前提하지 않았다. 要는 어느 것이 社會의 「最大多數」에게 「最大幸福」을 줄 수 있는냐 하는 相對的인 問題이었다. 그러므로 福祉의 問題에 있어서도 그것은 最大多數의 福祉이었고 바로 그러한 意味에서 「公共의 福祉」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스미스」의 「公共의 福祉」는 結局 「最大多數의 最大幸福」이라는 功利主義의 道德的命題와 密接히 相應하는 概念임을 알 수가 있다. 다만 다른 것은 幸福이라고 한 때에는 그것은 多分히 心理的, 生活一般的인 것을 말하는데 對하여 福祉라는 것은 人間의 物質生活面에 重點을 두고 있는 點일 것이다.

그러면 「스미스」에 있어서 一社會內에서 最大多數를 占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部類였을까? 「스미스」에 依한다면 그것은 「賃金으로써 生計를 세우는 사람들」⑥ 다시 말하면 勞動階級이다. 이것은 國富論의 到處에서 散見되는 다음과 같은 言句로 보아 조금도 疑心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卽「勞動하는 貧者 卽 國民의 大部分……」③

「僕婢、勞動者及 諸種의 勤勞者는 大政治社會의 大部分을 占한다」⑦ 이와 같이 國民의 大部分을 占하는 것이 勞動階級이라면 「公共의 福祉」는 主로 勞動階級の 福祉이요 적어도 勞動者의 福祉를 除外하고는 成立할 수 없는 理致이다.

그러면 「스미스」——「公共의 福祉」를 그의 經濟研究의 主要目的으로 삼았든 「스미스」——는 이 勞動階級の 福祉에 關하여 어떠한 見解를 남기 었는가. 이것이 곧 우리가 本論究에서 알고자 하는

問題이다。그러나 우리는 이問題에 드러가기 前에 잠시 되도록해서 「公共의 福祉」의 內容을 좀더 具體的으로 檢討해 놓고자 한다。그것은 「스미스」가 생각한 「公共의 福祉」의 經濟學的意義를 밝히 주는 同時에 또 앞으로의 行論에 있어서 多少·도움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註⑤ Adam Smith, *Wealth of nation s*, Cannan's ed. P. 397

⑥ Ibid. P. 423

⑦ Ibid., P. 423

⑧ 木村健康, 캄브릿지學派에 있어서의 아담스미스의傳統 「理論經濟學의諸問題」 所收, 東京大學經濟學部 二四、二五

⑨ A. Smith. op. cit. P. 68—69

⑩ Ibid., P. 81

⑪ Ibid., P. 78—79

II

먼저 公共의 「福祉」는 公共의 「幸福」과 相通하는 概念이라는 것은 上述한바와 같거나 이 말들은 다같이 個人的 主觀的인 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經濟科學에 導入하며 할 때에는 몇가지의 問題가 따를것이다。우선 첫째로, 「公共의 福祉」라는 말은 單字 그대로 「福祉的인 狀態」, 따라서 그대로서 좋은 狀態를 意味하느냐 또는 「福祉의 狀態」, 따라서 相互 比較에 依한 程度를 意味하느냐의 問題가 있을것이다。이것은 單純히 用語上的 問題같지만 그解釋如何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 할 結論에 重大한 影響이 미칠지도 모른다。

「스미스」가 到處에서 「公共의 福祉의 增進」①이라는 말을 使用한것으로 보면 그는 이말을 後

省의 意味로 使用하고 있음이 明白하다. 間或「公共의 福祉를 爲하여」라는 말도 눈에 띄우지만 그 것도 仔細히 檢討해보면 「公共의 利益의 增進을 爲하여」라는 意味로 使用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公共의 福祉의 增進」② 이라고 할 때 具體的으로 무엇을 가리키 福祉의 增進 또는 減少라고 하느냐? 別言하면 福祉의 客觀的指標가 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問題이다. 「國富論」中에서 問題에 對한 直接的인 答辯을 찾아내기는 難하지만 開卷 劈頭의 左記 一句는 充分히 그 答辯에 代할수 있을것 같다. 「各國民의 年年의 勞動은 本來 그國民이 年年 消費하는 一切의 生活必需品及 便宜品을 供給하는 源泉이며 이러한 必需品은 恒常 年年의 勞動의 生産物이거나 또는 그 生産物으로써 他國民으로 부터 購入하는 것이다. 故로 이 年生産物 또는 그것으로서 購入한것이 그를 消費할 사람들의 數에 對하여 比例가 크나 적으냐에 따라 그國民에 對한 必要品 又是 便宜品の 供給은 좋거나 또는 나쁜 狀態에 있다.」③ 또 國富論 第一篇 五章 冒頭에는 이러한 말도 쓰여져 있다. 「各人은 그가 人間生活의 必需品 及 便宜品(Conveniences) 及 娛樂品을 享有하는 程度에 따라 富이기도 하고 貧이기도 하다」④ 即 「스미스」에 依한다면 「公共의 福祉」의 客觀的인 指標는 各人이 享有하는 消費財의 分量으로 바뀔수 있는것이다.

勿論 「스미스」는 直接的으로 必需品、便宜品の 消費量의 多寡에 따라 「福祉」의 狀態가 좋고 나쁘다고는 하진 않았다. 그러나 人間의 幸福이나 福祉를 彼岸的、觀念的인 滿足으로서가 아니라 現世의 物質的인 滿足으로 解하는것이 功利主義思想의 「功利」다운 特徵일진대 福祉가 또한 物質的充足 或은 「必需品及 便宜品」의 充足을 떠나 있을수 없다는것은 自明의 理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미스」가 國民의 福祉의 尺度로서 消費財의 分量을 들었다는 것은 特히 우리의 注目を 끈다. 即 設使

一國에 生産設備과 生産力이 強大하다 하더라도 國民이 享有하는 消費財가 不足한限 그것은 國民의 福祉와 直接的인 關係가 없다는 것이다. 現在의 蘇聯의 事情을 聯想한때에 그 含蓄이 자못 深長한바 있지 않은가.

享有하는 消費財의 分류이 「公共의 福祉」의 客觀的인 指標라 하면 그것은 時間的으로나 空間的으로나 서로 比較한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公共」을 勞勤階級의 中心삼아 생각한다면 이問題는 主로 오늘날의 實質賃金에 關聯되는 問題인데 이것 亦是 그에關한 「스미스」의 見解를 듣기 어렵다. 그거나 「스미스」가 實地로 國富論에서 그比較를 行하고 있는것 만은 事實이다. 一例로 國富論 第一篇 第八章 「勞勤賃金에 關하여」의 章下에서 「勞勤의 實質上의 報酬、即 勞勤이 勞勤者로 하여금 取得케 하는 生活必需品 及 便宜品の 眞實의 量은 現世紀 동안에 (During the course of present century) 아마 勞勤의 貨幣價格 보다도 一層 큰 比例로增加한것 같다」^⑤ 라고 한것은 時間的比較라고 볼수있다. 「스미스」에 依하면 그原因은 穀物을 爲始하여 勤勞者階級이 消費하는 食糧及 衣料가 싸진때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미스」는 이러한 勞勤階級이 享有하는 消費財의 增加는 社會의 大部分을 占하는 勞勤者들의 幸福을 增進하는 故로 「公共의 福祉」의 增進이라고 생각 했는 것이다. 一方 「스미스」는 아래와같이 地域的인 比較도 行하고 있다.

「勞勤하는 食者 即 國民의 大部分의 狀態가 가장 幸福하고 安樂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社會가 完全히 富를 獲得한 경우 보다도 오히려 富의 새로운 獲得을 向하여 前進하고 있는 進步的 狀態에 있어서 이니 이것은 注目 할만한 事實인것 같다. 勞勤階級의 狀態는 社會의 停滯的 狀態에 있어서는 艱難하고 退步的 狀態에서는 悲慘하다. 進步的 狀態야 말로 社會의 諸階級의 全部에게 充足한 狀態이다. 停滯的 狀態는 生氣가 없고 退步的 狀態는 憂鬱하다」^⑥

또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一句는 一層더 趣意가 分明하다. 「勞動賃金의 上昇을 이르는 것은 國民的富의 現實的 크기가 아니라 오히려 富의 困乏 없는 増加이다. 그러므로 勞動賃金이 最高인 것은 가장 豊裕한 나라에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繁榮하는 나라 卽ち 가장 急速히 富裕해가는 나라에 있어서이다. 現在에 있어서는 英國은 確實히 北美洲의 어느 地方보다도 높은 것이다.」⑥

以上과 같은 比較는 「國富論」中에서 頻繁히 行해지고 있거니와 그中에서도 國富論 第一篇 第十章에 부쳐진 「過去 四世紀間에 있어서의 銀價値變動에 關한 餘論」에서는 그 많은 事例를 發見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할 것은 勞動階級이 享有하는 必需品이나 便宜品은 아모 代價없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一定한 勞動量의 代價로서 얻어지는 것이다. 「스미스」의 말로 한다면 財貨는 toil and trouble 의 代價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勞動者가 享有하는 必需品에 依한 福祉의 測定이나 比較는 그물 얻기 爲한 代價로 支出한 「마이나스」의 福祉를 顧慮하지 않고서는 無意味한 것이다. 왜냐하면 勞動者가 더 많은 必需品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만큼 受苦를 더 드린 結果에 不過하다면 福祉는 決코 늘었다고는 할 수 없을 터이니까 그러므로 「스미스」에 있어서는 福祉의 比較는 그물 얻기 爲하여 支出한 勞動量은 一定不變으로 해놓고 그 勞動의 代價로써 얻어지는 必需品이 많으나 적으나에 依하여 決定된다. 그가 勞動만이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不變의 價値尺度라고 한것은 바로 이러한 意味에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國富論 第一篇 第五章 「物品의 實價價格과 名目價格、卽ち 그 勞動價格과 貨幣價格에 關하여」에서 論하고 있는 價値尺度論은 이와 같은 福祉規準論의 觀點에서 읽을때에 오히려 興味が 있다. 卽ち 그것은 勞動의

名目價格인 貨幣貨金은 勞動者의 福祉의 同時比較의 (at the same time and place only) 規準으로서는 適當하지만 異時比較의 規準으로서는 穀物만 같지 못하고 또 훨씬 長久한 異時間의 比較規準으로서는 穀物도 勞動만은 같지 못하다. 그러므로 勞動만이 「一切의 時、一切의 場所」 At all time and places 에서 有效한 貨金의 價値規準이다. — 이러한 意味로 把握될 수 있는 것이다. 어찌서 勞動만이 不變의 價値尺度라고 생각되느냐 하면、貨幣나 穀物은 같은 量으로도 때에 따라서 많기도하고 적기도한 물건과 交換되니까 그 價値(主觀的인)은 動搖하지만 一定勞動은 그를 支出하는 勞動者에게는 언제나 同一한 價値로 느껴 지기 때문이다. 但 同一한 價値로 느껴지는 것은 勞動者에 있어서만 그러한 것이고 雇傭主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雇傭主는 같은 勞動을 雇傭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많기도하고 적기도한 利潤을 얻게 되니까. 그런데 이와같이 雇主와 雇傭人間에 그 認定하는 價値가 各各인 人間勞動을 「스미스」는 어찌하여 商品價値의 客觀的인 尺度로 삼았을까? 생각컨대 바로 여기에 「스미스」의 一定한 觀點이 나타나 있는 것 같다. 即 商品의 價値의 大小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勞動者의 評價에 依하여 決定될 것이 아니라 資本家의 評價에 依하여 決定될 것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말하면 「公共의 福祉」의 原因되는 商品의 價値決定은 勞動者의 利害가 基準이 되어야 하고 資本家의 利害가 基準이 될 것이 아니라는 觀點이 그것이다.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스미스」에 있어서 「公共의 福祉」가 주로 누구들의 福祉인가는 스스로 明白하지 않은가?

註① Adm Smith, op. cit P. 423

② Ibid., P. 423

③ Ibid., lvii

④ Ibid., P. 30

Ibid., P. 78

⑥ Ibid., P. 71

⑦ Ibid., P. 69

⑧ Ibid., P. 37

⑨ Ibid., P. 33

三

나는 위에서 「스미스」의 經濟學의 主目的이 「公共의 福祉」의 增進에 있었다는 것 「公共의 福祉」는 勞動階級の 福祉가 中心이 된다는 것 그리고 「公共의 福祉」의 客觀的인 尺度는 國民이 享受하는 消費品의 分量이 되 그것은 一定勞動을 基準으로 한 報酬로서의 消費品量이라는 것 등을 骨子로 하여 「公共의 福祉」에 對한 一般的인 考察을 하여 보았다. 이제 우리는 「스미스」가 「公共의 福祉」의 中心이 되는 勞動階級の 福祉에 關하여 어떠한 見解를 持졌는가를 檢討할 段階에 온 것이다 勞動者의 福祉가 「公共의 福祉」의 中心이 된다고 생각한 「스미스」인 만큼 勞動者의 福祉에 對한 그의 關心은 決코 普通의 것이 아니다. 그 얼마나 關心의 度가 두터웠기에 後進「말다스」로부터 아래와 같은 評言을 드렸음이다.

「아담·스미스」博士의 研究의 公言된 目的은 諸國民의 富의 性質及 原因이다. 그러나 그가 때때로 그것과 混同한, 어찌면 그에게 興味가 더 있었을지도 모르는 他의 研究가 있다. 그것은 諸國民의 幸福에, 詳言하면 各國民에 있어서 最大多數階級을 이루고 있는 社會의 下層階級の 幸福及 歡樂에 影響을 끼치는 諸原因에 關한 研究를 意味한다. 나는 이 두가지 主題가 密接한 關聯을 갖고 있고 있는 것 및 一國의 富를 增加하는 傾向을 갖는 諸原因이 一般的으로 말해서 同時に 人民의

下層階級の 幸福을 增加하는 傾向을 갖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마 「아담스미스」博士는 이 두가지 研究를 事實 以上으로 密接히 關聯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적어도 그는 一社會의 富가 (그의 富의 定義에 따른다면) 그 勞働階級の 慰樂을 增進하는 傾向을 갖임이 없이 增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留意하려고 하지 않았다.」①

往往「스미스」의 經濟學은 「매뉴팩처어」段階의 産業資本家階級の 立場을 代辯한 것이라고 말함으로 제 마치 「스미스」는 누구보다도 資本家の 利益에 置重한 것 같은 印象을 주는 見解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誤解를 一掃하는 데에는 不過 左의 一文으로서 足할 것이다.

「그들(資本家)의 思慮는、社會全體의 利害보다는 그들 自身の 特殊한 事業部門의 利害에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設使 最大の 公平을 찾이고 (언제나 그렇다고도 할 수 없다) 일을 한다.」치드라도 이 두가지 目的中 前者는 後者に 있어서 만큼 信賴할 것이 못된다. 그는 때때로 地主의 寬大를 利川하여 우리의 利益이야 말로 社會公共의 利益이지만 너희들의 利益은 그렇지 않다고說得하여 그들 單純、眞心으로 確信케 하고 그로써 그들 自身の 利益과 社會公共의 利益을 다같이 버리게 하는 일이 가끔 이어난다. 그러나 어떤特定部門의 商業 又是 製造業에 從事하는 商人의 利益은 어느點에 있어서는 恒常 社會公共의 利害와 같지 않으며 相反할 때 조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階級이 提出하는 商業에 關한 새로운 法律 또는 規則案에 對하여는 恒常 非常한 警戒 必要한 것인바 아주 周到하고 疑心이 많은 눈으로 오래동안 注意깊게 檢討한後가 아니면 그를 採擇 하여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그利益이 決코 社會公共의 그것과 細密하게는 一致하지 않는 사람들 一般的으로 社會公共을 欺瞞하고 弄만 아니라 그들 彈壓하는 데에서 利益을 찾는 사람들 故로 從來 많은 경우에 있어서 社會公衆을 欺瞞하기도 하고 斷壓도 하여온 사람들, 이러한 階

級에서 그 提案은 나왔기 때문이다。」②

「스미스」의 勞動重視의 觀點은 本始 그의 다음과 같은 勞動觀에 因山하고 있는 것이다。即 「모든 國民의 年年의 勞動은 本來 그 國民의 年年 消費하는 모든 生活必需品와 便宜品을 供給하는 資源이다」③ 「勞動은……모든 물건에 對하여 支拂되는 本源的購買貨幣 이었다。」④ 이와같이 勞動이 人間의 經濟生活의 基本일진대、勞動하는 勞動者와 福祉가 重要하다는것은 「스미스」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었다。그는 勞動者의 福祉가 重要視되어야 하는 理由를 우선 道義的인 觀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國民全體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住) 사람들이 自身도 먹고 입고 살만한 生産物의 몫을 차지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다만 公正을 期하는것 以外の 아모것도 아니다」⑤

勞動重視의 道義的 理由를 들어 이보다 더 簡明 直截한 表現은 없을 것이다。勞動者에게 좋은 報酬를 주면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는 見解는 일찍이 「페티이」(Petty 1623—1687)의 著作에도 나타나 있다。⑥ 「스미스」는 이러한 類의 見解에 對해서는 아래와 같이 痛駁을 加한다 「生必需品인 쌀 해에는 勞動者들은 더 게을러 자고 비싼 해에는 平常時 보다 더 부지런 해진다。그러므로 生活資料의 豊富는 그들의 勤勉을 解馳케 하고 그 不足은 그들의 勤勉을 促進한다。이렇게 從來부터 말하여 왔다。그러나 生活이 平常時보다 若干 더 넉넉해질 때 一部 勞動者가 게을러 진다는 것은 疑心할바 없겠지만 그렇다고 勞動者 全部가 그렇게 되었다거나 또는 普通 사람은 잘 먹을 때 보다 먹지 못할 때에、마음이 便할 때 보다 마음이 상할 때、몸이 健康할 때 보다 때때로 病을 알을 때에 일을 더 잘한다고 하는 것은 도모지 고지 불리지가 않는다。缺乏의 해는 普通 一般民에 있어서는 疾病과 죽임의 해이고 반다시 그들의 勤勞의 生産物을 減少 시키고야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①

「勞動의 厚한 報酬는 人口增殖을 促進하지만 同時의 普通의 사람들의 勤勉도 增進한다。勞動의 賃金은 勤勉의 促進劑이고 勤勉은 모든 人間의 性質과 마찬가지로 剌戟에 應하여 向上하는 것이다。生活資料가 豊富하면 그것은 勞動者의 體力을 增強시키고 그의 生活이 豊와지며 晩年에는 安樂하고 豊足하게 살수도 있으리라 하는 希望이 있게 되면 그것은 그의 意慾을 도우어 最高度로 힘을 發揮케 한다。그러므로 賃金이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에 比하여 職工이 活潑하고 勤勉하고 敏活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보는 事實이다。」②

그러므로 「스미스」에 依하면 勞動者를 厚待하는 것은 利潤과 말미 社會의 利益과 一致하는 것이었다。

「第二의 階級、即 賃金으로서 生計를 세우는 사람들의 利益은 第一의 階級(土地所有者)의 利益만 못지 않게 社會의 利益과 密接히 結付 되어 있다。이미 明白히 한바와 같이 勞動者의 賃金은 勞動에 對한 需要가 不斷히 上昇할 때에 或은 雇傭數량이 每年 顯著히 增加하고 있을 때에 가장 높다。社會의 實際的 富가 停滯하게 될 때에 그의 賃金은 艱辛히 家族을 먹여 살리고 勞動者라는 種族을 겨우 持續할 수 있는 程度까지 引下된다。社會가 衰退 할 때에는 勞動者의 地位는 이 以下로도 떨어진다。」③

「人民의 下層을 占하는 階級の 生活狀態의 改善은 社會에 對하여 利益으로 認定될 것인가 또는 不便 Inconveniencey 으로 認定될 것인가。이에 對한 對答은 一見하여 明白하나。下僕、勞動者及 諸種의 勤勞者는 모든 大政治社會의 大部分을 占한다。그런데 社會의 大部分의 生活狀態를 改善하는 일이 社會全體에 對하여 決코 不便이라고 생각 될 理는 없다。그리고 社會成員의 大部分이 貧困하

고悲慘한 社會는 決코 繁榮하거나 幸福한 社會라고는 할수가 없다。」^⑩ 그러나 資本家들은 때때로 高賃金 때문에 事業을 繼續할수가 없고 그로 인하여 「國家經濟」의 發展이 阻害된다고 愛國(?)의 表情을 吐露한다. 「스미스」는 이러한 무리에 對하여도 딱끔한 一針을 주는 것을 잊지 안었다.

「勞動의 報酬가 좋다는 것은 富의 增加의 結果이고 또 同時に 그것은 人口增加의 原因이다. 이에 對하여 不平을 말하는 것은 最大의 公共的繁榮의 必然의 結果 及 原因에 對하여 우는 소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듯 「스미스」의 勞動福社論은 熱烈을 極하고있다. 前記한 바와같이 「말다스」가 國富論을 가른 處 「富의 性質及 原因」이 아니라 「下層階級の 幸福과 慰安의 諸原因」을 研究한것 같다고 비꼬은 것도 決코 根據없는 말은 아닌것이다. 우리가 보더라도 「스미스」가 萬若 四〇年만 늦게 誕生하였더라면 그는 아마 社會主義者가 되지 않았을가할 程度다.

註① 堀經夫、經濟思想辭史典 創元社 一六四面 傍點筆者

② A. am Smith, op. cit., P. 66—67,

③ Ibid., lvi

④ Ibid., P. 30

⑤ Ibid., P. 79

⑥ 越村信三郎 經濟學史 七一面

⑦ Adam Smith. op. cit. P. 82—83

⑧ Ibid., P. 81

- ⑨ Ibid., P. 249
- ⑩ Ibid., P. 73
- ⑪ Ibid., P. 81

四

그러나 如何히 勞動者의 福祉를 重要視하고 그에 對하여 애끓는 同情을 기우린들 그것만으론 勞動者들의 運命을 어찌 하리오. 要는 그社會에 勞動者의 福祉가 實現될만한 客觀的 條件이 있는 나 없느냐가 問題이다. 그러면 「스미스」가 勞動階級の 福祉에 關한 客觀的인 諸事實을 어떻게 把握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자. 그러기爲하여는 그의 賃金論을 보아야 한다.

「스미스」에 依하면 「自然的狀態下에서는 勞動의 生産物이 勞動의 自然的報酬 또는 自然的賃金を 構成한다。」① 그러나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土地의 私有, 資本의 蓄積으로 말미암아 勞貨의 自然的報酬는 全部 勞動者에게 歸屬되지 않고, 그中에서 「第一의 扣除」로서 地代가 「第二의 扣除」로서 利潤이 各各 떠러져 나가고 그 나머지만이 賃金으로 勞動者에게 歸屬되는 것이다. ② 두말 할것없이 이것은 勞動價值說의 基本命題이다.

다음에 그리면 勞動賃金은 實際로 어떻게 決定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먼저 「利害가 決코 同一치 않은」雇主와 勞動者사이의 契約에 依하여 決定된다. ③ 그런데 이 契約締結에 있어서는 雇主는 比較的 小數이어서 團結이 容易한데 對하여 勞動者는 數가 많고 無智한 탓으로 團結으로써 自身의 利益을 擁護할줄 모르고 또 法律은 「勞動의 價格을 引上시키려는 勞動者의 團結은 禁壓하되 賃金을 내리려는 雇主의 團結은 이를 容認하며 또 雇主는 爭執中에도 一年이나 二年쯤은 營業을 안하고도 살수 있지만 勞動者는 단 一週日이나 一箇月동안을 賃金없이 살수는 없기 때문에 恒常

不利한 立場에 서게 되고 따라서 억울한 賃金에 承服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서 勞賃對立에 關한 「스미스」의 敘述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그의 細密한 觀察에 嘆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一例로 그는 雇主는 賃金의 引上을 阻止하거나 또는 그것을 引下하기爲하야 團結工作을 秘密暗默裡에 遂行하기 때문에 그行動은 世上에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勞動者의 團結工作은 恒常世上의 耳目을 끌게 된다는 것 까지도 들어 말하고 있다.

그리고 勞動者들은 「爭點을 迅速히 決定하려고 하여 반드시 極度の 騷亂을 일으키고 때로는 極히 強暴한 暴行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들은 絶望의이고 絶望한 人間의 愚昧와 無謀로서 行動하여 굶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強迫으로 雇主를 戰慄시켜 그들 앞에 雇縱시키거나, 두가지 中의 하나를 擇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雇主側도 또한 騷亂을 일으켜 官憲(Civil Magistrate)의 助力을 求하는 한편 使用人 勞動者 及 見習員의 團結을 嚴重히 取締하기 爲하야 만들어진 法規를 峻嚴하게 適用할 것을 要求한다. 이리하여 이렇한 騷然한 團結의 暴動에서 勞動者가 利益을 얻는다는 것은 極히 드물고 大概 先導者의 懲罰과 敗北으로 고치고 만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官憲의 干涉이 있고 또 雇主側은 모든 것에 兇惡 確固한데 比하야 勞動者의 大部分은 目前의 生活를 爲하여 雇從해야 할 必要에 強迫되어 있기 때문에。」④

이와같이 資本家는 勞動者들에게 적게 주기 爲하여 그들의 有利한 社會的立場을 利用하지만, 그러나 賃金에는 더 나릴게야 나릴 수 없는 「一定의 率」이 있다. ⑤ 卽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 以上 그것은 저어도 生命을 維持하고 일을 할 수 없는 程度로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다. 萬若 賃金率이 그 程度도 못된다면 勞動者의 「種族은 最初의 一代以上은 存續할 수 없게」⑥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산다는 것은 自己 혼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妻子 家族과 함께 사려야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賃金率이란 그自身과 더불어 家族도 살수있는 程度 「아니 그보다 若干以上の」 賃金率이어야 한다. ⑦

이리하여 「스미스」에 依하면 勞働者의 賃金은 特別히 「有利한 事情」⑧이 없는限 前記와같은 生活必要費에서 決定되게 마련인데 이것이 곧 賃金の 「自然率」이다.

이때에 最低生活費가 具體적으로 어느程度의 所得이나에 對하여는 「스미스」는 明確한 答辯을 保留하고 다만 大略 「夫婦二人을 合한 그들自身の 生活를 維持하는데에 足한것 보다 어느程度 以上の 것」⑨ 이어야 할터인데 그 「以上」이 얼마만큼의 것이냐에 對하여는 「決定하지 않으된다」고 말하고 있다.

上記에서 「特別히 有利한 事情이 없는限」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그 「有利한 事情」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함인가 「스미스」에 依하면 社會가 「進歩的狀態」에 있을때가 그것이다. 다음 句節이 그를 말한다.

「勞働食民 卽 國民의 多數가 가장 幸福하고 가장 安樂해 보이는 것은 社會가 그富의 完全履 脩를 得하였을 때보다는 오히려 그社會가 發展하여 一層의 富를 獲得하려고 할때 卽 進歩的狀態에 있을 때이다.」⑩

「進歩的狀態」가 具體적으로 如何한 狀態나하면 그것은 오늘의 말로 한다면 擴大再生産의 경우 또는 純投資 或은 追加投資가 繼續되는 社會狀態를 말함이다. 「스미스」에 依하면 投資量의 增加는 곧 「賃金基金」의 增加를 意味한다. 그러므로 賃金基金이 늘면 勞働에 對한 需要가 增加하고 따라서 勞働의 供給量이 不變이라고 하면 賃金은 上昇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賃金을 自然率 以上으로 올리는 唯一의 길은 賃金基金의 增加 밖에 없는 것이다. 「스미스」가 그렇게도 節約

을 強調하고 資本의 蓄積을 力說할 理由에는 勞動者의 福祉의 向上이라는 觀點도 包含되어 있음
을 알수가 있다. 勿論 「스미스」에 있어서는 그것은 非但 勞動階級에게만 有利한 것이 아니라 「實際
로 社會의 모든 階級에게 愉快하고 즐거운 狀態」이다. ⑫

그러나 勞動資金에 影響을 주는 것은 非但 投資量뿐이 아니라 人口의 需給도 關係되는만큼 그
의 人口論이 또한 問題가 된다. 事實上 「스미스」는 人口와 資金과의 關係에 關하여도 永遠히 後
代의 스승이 될 位置에 있다. 但 그는 後進 「말다스」와는 달리 貧困이 出生을 「체크」하는 法은 없
고 오히려 富主된 貧家의 婦人들이 아회를 많이 낳고 好食하는 貴婦人들은 아회를 못 낳거나 또
는 斷産이 빠르다고指摘하였다. ⑬

그러나 스미스는 貧困은 出生을 抑制하지는 않되 그 養育에 障害를 주기 때문에 結局에는 人口抑
制의 要因이 된다 하였으니 結論에 있어서는 「말다스」와 같은 셈이다. 그도 또한 勞動도 「다른商
品과 마찬가지로」 資金의 上下를 媒介로하여 그 需給이 自動적으로 調節되게 마련 이라고 한다. 即
勞動資金이 必要生活費 以上으로 오르면 人口增殖(供給增加)으로 말미암아 다시 資金은 必要生活費
의 水準으로 下落하고 또 勞動이 오래동안 必要生活費以下 일 때에는 勞動人口의 相對的 減少를 結
果하여 또 다시 資金을 必要生活費의 線까지 고려 올리게 마련 이다. ⑭ 이것은 商品價格이 需要
供給의 作用에 依하여 不斷히 그 中心價格으로 이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運動法則이다.

以上이 「스미스」의 資金에 關한 諸規定이다. 그런데 그內容을 檢討해보면 그것은 所謂 「資金基金
說」과 「말다스」의 人口法則을 支柱로하여 成立되는 「資金鐵則」의 基本命題와 大端히 相似함을 알
수가 있다. 다만 다른點은 資金鐵則은 언제나 勞動者는 物質的으로 不幸하게 마련인데 對하여 「스미
스」에 있어서는 勞動者가 比較的 幸福할때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때나하면 社會가 進歩

的인 狀態에 있을때인즉 거기에는 上記의 人口法則을 據해서 豫想한다면 그것은 結局 다음과 같이 定式化될수있을것이다.

即「年年의 擴大再生産에 있어서 投資額의 增加率이 그해의 雇傭을 願하는 勞働人口의 增加率을 凌駕할 때에는 勞働賃金は 生活必要費以上으로 引上되고 따라서 勞働者의 福祉는 向上된다。」 이것은 좀더 單純하게 말하자면 勞働賃金이 生活必要費以上으로 引上되는것은 勞働의 需要量이 그供給量을 超過할 경우인즉, 그것은 新投資의 增加率이 人口의 增加率을 凌駕할때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註① Adam Smith. op. cit. P. 64

- ② Ibid., P. 65
- ③ Ibid., P. 65-67
- ④ Ibid., P. 67
- ⑤ Ibid., P. 67
- ⑥ Ibid., P. 68
- ⑦ Ibid., P. 68
- ⑧ Ibid., P. 68
- ⑨ Ibid., P. 68
- ⑩ Ibid., P. 69
- ⑪ Ibid., P. 69
- ⑫ Ibid., P. 81
- ⑬ Ibid., P. 81

五

以上에서 우리는 「스미스」의 勞動賃金에 關한 客觀的 諸規定을 보아 왔다. 이제는 그러한 賃金에 關한 諸事實이 그의 「公共의 福祉」와 如何한 關係에 있는 가를 檢討하여야 한다.

먼저 「公共의 福祉」 또는 國民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勞動階級の 福祉를 強烈히 希求했던 「스미스」로서는 當然히 社會의 「進歩的인 狀態」의 持續을 希求했을 것이다. 그러나 「스미스」의 體系에 있어서 果然 「進歩的인 狀態」가 勞動者의 幸福과 兩立할 수 있는 것일까? 「스미스」의 前記의 賃金에 關한 諸規定을 仔細히 檢討해보면 「스미스」스스로가 그것을 否定하고 있는 것 같다. 먼저 그에 依하면 社會의 「進歩的인 狀態」는 追加投資가 繼續되는 경우 或은 오늘의 말로 「資本擴張」이 繼續되는 경우를 包含함에 그러면 그追加할 수 있는 資本은 어디서 어떻게 하여 생기는 것일까. 그에 依하면, 그것은 第一은 「生活維持에 必要한 以上の 收入, 第二은 雇主의 使用에 必要한 以上の 資財」①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는 그前後의 文句를 살펴보면 結局 地主, 年金受領者, 獨立的 職人들의 生活維持費를 超過하는 「剩餘」②에 不外하다. 그러면 이剩餘의 源泉이 무엇이나하면, 그답은 上記의 「自然賃金」에 關한 敘述中에서 주어져 있다. 卽 위에서 본바와같이 「스미스」에 依하면 地代와 利潤은 「賃金의 自然的報酬 또는 自然的賃金」에서의 控除이고 ③ 前記의 두가지 剩餘는 바로 그控除部分(地代와 利潤)에서의 剩餘인 것이다. 따라서 그源泉은 勞動의 「自然的報酬」에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勞動의 生産物이 勞動者, 地主, 雇主間에 分配될 때에 地主와 雇主의 몫으로도라간 部分에서 남은剩餘에 不外하다. 그런데 剩餘가 이러한 것이라면 剩餘의 大小와 賃金의 大小는 서로 相反關係에 있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勞動生産物 全體中에서 地主나 雇主에게 도라가는 몫이

많은데 或은 勞動者에 도라가는 몫이 적을때에 그剩餘는 많이 결터이니까.

따라서 이러한 關係에 있어서는 勞動者에게 賃金을 더 주게 되는 基金(剩餘)의 增加는 그에앞서 勞動者에게 賃金을 덜 줌으로써 蓄積한 基金일수 밖에 없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社會的進歩의 原動力이 되는 「基金」의 增加도 根本的으로는 勞動者의 福祉와는 一致할 수 없는 關係에 있지 않은가? 허기야 「스미스」가 社會의 進歩의 狀態下에서 勞動者가 가장 幸福하다고 했을때에 그말은 전혀 矛盾되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增加된 基金으로 勞動者를 더 雇用하게 되는 時期는 그基金을 蓄積하기 爲하야 勞動者들에게 덜 주던 時期보다는 勞動者에게 더 幸福한것만은 事實이니까. 「스미스」는 賃金도 商品價格과 마찬가지로 自然率을 中心으로하여 上下하게 마련이라 하였거니와 그는 바로 그上向運動의 面을 보고있는 것이다. 事實上 「스미스」는 바로 이러한 上向運動의 時期에 英國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스미스의 理論上 이 上向運動의 以前에는 반드시 資本蓄積을 爲한 下向運動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以後에도 下向運動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미스」에 依한다면, 賃金騰貴에 依하여 勞動者의 生活이 潤澤해지면 勞動人口가 增加하여 또다시 賃金率을 오히려 나리게 마련 이니까.

이렇게 보면 「스미스」에 있어서, 社會進歩에 依한 勞動者의 幸福은 臨時的, 過渡的인 것에 不過하였고, 그로 因하여 勞動者의 幸福이 永遠히 保障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스미스」에 있어서는 이러한 各生産要素의 價格의 動搖는 設使 上昇期에 어느階級에게 利益을 준다 하더라도 決코 바랄만한 일일수는 없는것이다. 왜냐하면 「스미스」에 있어서는 그價格의 動搖의 基礎에 있는 自然價格의 成立이야말로 가장 理想的인 狀態였으니까. 그가 自由放任을 熱烈히 主張한것도 結局은 이러한 自然價格의 實現을 爲해서 였고 또 自由競爭을 그대로 내버려 두

然 價格運動은 이自然價格으로 歸하게 마련이라는데에서 그의「豫定調和」의 信念은 經驗的根據를 發見했는 것이다. 그러면 自然價格의 狀態下에서는 勞動者의 福祉는 滿足할만한 것이될수있는가 自然率의 貨金、利潤 및 地代를 合計한것이 그의 自然價格인데 그 自然率의 貨金이 이미한 貨金이나 하면 우리가 지급까지 보아온바로는 그것은 生活必要費로서의 貨金이었다. 即 勞動基金의 一定額과 人口法則때문에 勞動者의 生存費를 超過할수없는, 그러한 程度의 貨金이었다. 그러면「스미스」가 理想狀態라고 생각한 自然價格下에서의 貨金이 이것이라면「스미스」는 그것으로써 勞動者의 福祉는 滿足한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인가? 그렇지않다. 萬一 그렇다면「國富論」을 一貫한 勞動福祉向上에 關한「스미스」의 부르짖음은 것이 理解할수없는 것이 될것이다. 누구나「國富論」을 읽는 사람은 그에게는 恒常 勞動者의 所得은 他階級の 그것에 比하여 不當히 저다 라는 一種의 先入見이 支配하고있음을 분것이다.

그러면 「스미스」는 前記와 같이 그스사로가 그려놓은 社會의 事實面에는 勞動者의 滿足할만한 福祉가 保障될 條件의 稀薄함에도 不拘하고 어찌하여「自然的 自由의 制度」에 依하여 自然價格이 所立될때에는 萬人이 다같이 共榮할수있고 勞動者의 福祉도 應分의 것이 될수있다고 생각했는가? 도대체 어디에 그의 自然調和의 思想은 根據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야말로 慎重한 研究를 要하는 問題이거나와 우선 우리가 보는바로는, 그것은 그가事實의 世界와 混同한 理念의 世界에 根據하고 있는것같다. 即 그의 自然價格에는 別個의 概念——實際로「있는」것이 아니라「있어야할」價格이라는 意味의 또하나의 自然價格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意味의 自然價格이 成立될때에「스미스」가 생각한「調和」는 이루어 질수있는 것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있는것(存在)과 있어야할것(當爲)과의 混同인데 이混同은 일즉이 그의 價值論에

서 부터 出發하고 있으므로 以下の 說明은 그의 價値論에서 부터 始作함이 좋을 것 같다. 周知하는바와 같이 그의 價値論에는 이른바 分解價値論과 構成價値論의 兩面이 있다. 前項에 있어서는 商品價値의全體는 勞動에 依하여 創造된 것이고 그것이 地代、利潤、勞動의 各所得으로 分割된다. 그러므로 그 分割의 熊樣이라든가 分割部分이라든가 하는 것은 全體의 크기에 依하여 終局的으로 制約되며 各所得의 크기는 서로 反比例的인 關係에 있다. 卽 利潤으로 도라가는 部分이 많으면 많을수록 地代나 賃金으로 도라가는 部分은 적어지고 反對의 結果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各所得은 價値의 結果이되 그原因은 아닌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勞動價値說의 主要骨子이거나 이說에 依한다면 一社會에 產出된 富는 全部가 勞動의 產物이고 그生産物은 資本主義라는 一定한 物 안에서 그것이 이 制約하는 方式에 따라 各階級에 分配된다. 그리고 이 分配樣式은 그 물이 維持되는限 恒常的이요 法則的이다. 이러한 分配의 內在法則이 外部의 現象에 反映된 面이 「스미스」에 있어서는 一面으로 自然價格으로 概念되었다. 그는 自然價格은 「한社會 또는 그附近에서 行하여지는 賃金、利潤地代의 普通率 또는 平均率」의 合計라고 定義하였을뿐 그 平均率 또는 普通率自體가 어떻게 해서 形成되는 것인가에 關하여는 明白히 밝히바가 없지만은 이러한 自然率 또는 普通率의 成立이야말로 그內在法則의 現象化에 不外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面에서 把握한 自然價格의 概念은 多分히 資本主義社會의 分配에 關한 法則的側面을 反映한다. 前節에서 우리가 본 「스미스」의 賃金에 關한 諸規定은 바로 이러한 事實面에 立脚한 把握이 였고 따라서 그것은 多分히 科學的이다. 그러나 「스미스」가 分割價値論을 비티고 構成價値論으로 돌아갈때에 問題의 觀點은 一變한다. 構成價値論에 依하면 所得의 各部分은 全體의 크기에 依存하는 것이 아니라 各部分이 絶對的 獨立的으로 價格의 原因이되어 그 結合으로써 一價格이 合成된다. 그러기 이렇게 되면 各所得의 크기는 他所得

과는 아무런 關係도 없이 하나하나 獨立的으로 決定될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때에 獨立的인 各 所得의 크기를 決定하는 原理는 무엇이나.

前記、分配價值論에 있어서는 價格 或은 價値의 全體는 勞働의 生産物이라는 하나의 出發點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出發點은 없어진다. 다만 알려져있는 事實은 勞働、利潤、地代에는 通常率 平均率이 있다는 現象뿐이다. 여기에서 「스미스」에게는 그러한 平均率 通常率의 形成에는 人間의 道德慣習等 人間의 性情의 面이 參加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하여 동떠러진 各所得의 크기를 決定하는 原理에 導入된것은 하나의 倫理觀이었다. 卽「스미스」에 있어서의 「正義」라는 觀點이 그것이다. 「스미스」에 依하면 人間은 自利心과 愛他心の 두 가지 側面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 兩側面을 統一하는 原理가 곧 良心이다. 그런데 良心은 至極히 主觀的인 것이어서 客觀的인 規準을 세울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主觀的인 良心이 長久한 人間經驗을 通하면 漸次로 그內容이 客觀化될수 있으니 그 客觀化된 內容이 곧 正義의 法則이다. ④그는 이 「正義의 法則」의 內容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卽 그것은 「첫째로 우리들의 隣人의 生命과 人格을 防護하는 法則이며 둘째로 隣人의 財産과 所得物을 防護하는 法則이며, 끝으로 所謂 對人權、卽 他人과의 契約에 依하여 當然히 그에게 歸屬해야 할 利益을 擁護하는 法則이다」 ⑤ 그리고 「스미스」는 「萬若 正義의 法則이 除去된다면 人間社會의 廣大한 構造는 一瞬에 粉碎되지 않을수 없다」고 한다. 이리하여 「스미스」는 正義의 觀點에 立脚한 또 하나의 自然價格이 概念되는 것이다. 그는 앞서 貨金의 自然率을 「勞働者를 維持하고 그의 家族을 扶養하는데에 足한」 貨金이라고 規定하였지만 여기에서는 「普通의 人道에 反하지 않는 最低率」 ⑥이라는 規定이 登場한다. 第九章의 利潤論에서 그렇게 銳利한 科學的識眼으로 「칸탈론」의 監督貨金說을 粉碎한 그였

지만 他方 第七章下의 自然價格論에 있어서는「合理的」이라는 見地에서 自然率의 利潤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그가 市場에 對하여 財貨를 準備하고 提供할 동안……그自身에게 前貸한 生活資料가 그의 合理的인 利潤에 相當한다」⑦ 即 여기에는 投下資本에 對한 一定率의 利潤이라는 觀念보다는 所謂「適正」利潤의 觀念이 前面에 내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地代로 말하더라도 그것은 普通 利潤을 超過하는「餘分의 것」이니까 地主가 차지하는 것이「宜當」(Natural)하다고 보는 것이다. ⑧

이와같이 새로운「自然價格」은 모두가「宜當」「合理的」또는「人道的」과 같은 一種의 價值判斷의 基礎에서 規定되는 三個所得으로 構成되고 있는 것이다. 勿論 各所得이 純然히 倫理的인 觀點에서만 規定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正確히 말한다면 그것 客觀的인 事實分析에 있어서 그 科學的 透視力이 미치지 못한 곳을 倫理的觀點으로 메꾸어버렸다는, 그것뿐이다. 더욱이 自然法則과 倫理法則이 根本的으로 別個의 것이 아닌「스미스」에 있어서 이러한 일은 能히 있음직한 일인 것이다. 이리하여「스미스」가「自然的自由의 制度」下에서 窮極의 成立되는 自然價格下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調和된 利益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自然調和의 理念은, 經濟的인 面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意味의 自然價格에 基礎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에 依하여 指摘되듯이「스미스」는 있는 것과 (Sein) 있어야 할 것 (Sollen)을 아모 媒介로 없이 그대로 統一되는 것 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兩者를 서로 混同하기도 하고 同一視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自然調和의 理論도 仔細히 따지고 보면 上述한바와같이 그의 客觀的 事實의 世界 即 存在의 世界에서 導出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理念 또는 常爲의 世界에서 導出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角度에서 表現한다면 그의 自然調和의 信念은 그의 科學의 世

界에서가 아니라 그의哲學에서 導出되고 있다고 하여도 좋다.

⑤ Adam Smith, op. cit. P. 69 世界

⑥ Ibid., P. 69

⑦ P. 55 欠數

⑧ 北澤新治節 經濟學史 早大出版部 四七頁以下

⑨ Adam Smith, Theory of moral sentiment, Bohn's library, P. 125

⑩ Adam Smith, Wealth of Nations P. 68, 71, 74.

⑪ Ibid. P. 35—36

⑫ Ibid., P. 144

六

이러하여 以上을 다시 한번 要約해 본다면 「스미스」의 經濟學의 主要目的은 國民個個의 富裕化인데 그것은 그가 國富論의 到處에서 使用하며 또 強調하는 「公共의 福祉」와 一致되는 것이었다. 이런 「스미스」에 있어서는 「公共의 福祉」는 國民「大多數」를 占하는 「勞動하는 下層階級의 福祉」가 中心이 되어야 하고 그를 除外하고는 「公共의 福祉」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스미스」는 勞動者의 福祉에 關하여 非常한 關心을 보이었고 國富論을 貫通하는 하나의 基本精神은 人間勞動의 重要性과 勞動하는 사람들의 福祉向上의 緊要性을 強調하는 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미스」에 있어서는 「事物의 自然的運行」에 맡기어 두면 勞動者의 福祉도 他階級만 못지 않게 저절로 높아지게 마련이었다.

「스미스」가 資本主義社會의 客觀的 事實構造를 어떻게 把握하였기에 그러한 樂觀論이 나올 수 있

는. 하고 우리는 그의 勞動賃金에 關한 諸規定을 檢討하였다. 그러나 檢討의 結果는 「스미스」의 期待를 「스미스」自身이 背反하고 있는 것이었다. 卽 그自身이 그럭저럭은 社會의 事實構造 (그것은 透徹正確하게 그리지는 못했지만)에 依한다면 勞動者의 福祉는 永遠히 限定된 것에 不過하였다. 그가 勞動者가 가장 幸福한 時期라고 하는 社會의 進步的 狀態조차도 그根本을 깨고보면 勞動者의 福祉의 改善과 兩立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스미스」의 樂觀論 또는 自狀調和의 思想은 어디에 根據하고 있는 것일까? 이에對하여 우리는 豫見인지는 모르나 하나의 解釋을 나려 보았다. 卽 「스미스」는 現狀態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不滿足한 것이지만 經濟社會가 完全한 狀態 (그것은 곧 完全競爭에 依하여 成立되는 自然價格의 狀態——)에 到達하면 모든 不滿足한 點은 除去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完全狀態下에서 成立되는 自狀價格은 그에 있어서는 理想화된 理念上的 價格이었고 그가 科學的인 눈으로 把握한 따라서 資本主義社會의 事實的인 諸面에 基礎하는 또 하나의 自然價格과는 別個의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의 「自然調和」의 信念은 結局 그가 客觀的으로 把握한 經濟社會의 事實構造에서 導出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事實의 世界와 混同한 理念의 世界에서 導出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存在와 常價를 아모런 對立과 統一이 없이 그대로 合致되는 것으로 본 理論的哲學觀에 因由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가 끝으로 얻는 結論은 아래와 같은 것이다. 卽 「스미스」는 勞動者의 福祉를 中心으로 하는 公共의 福祉向上에 至대한 關心을 부치었고 또 그것은 그의 學說體系全體中에서 莫重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의 學說體系에서 그目的에 適合한 科學理論은 求하기 어렵드라는 것이다.